

고흥군, '민생경제 살리기' 총력...54억 긴급 투입

소상공인·농축수산업·취약계층
고흥사랑상품권 15%까지 할인
공공요금·약정이자 연 3% 이내
난방비·경로당 부식비 등 지원

고흥군이 체감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54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지역 소상공인과 농수축산 농가, 저소득·취약계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14일 고흥군에 따르면 경기 침체와 지역 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고흥군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3대 분야 24개 사업에 예비비 3억원을 포함한 총 54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분야별로는 △버팀목이 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31억원 △농축수산업 경영

안정 및 소비 확대 지원 14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행복시책 확대 9억원 등이 다.

먼저 고흥사랑상품권은 1월 한 달간 지원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4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고흥사랑카드·모바일 상품권은 6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결제 시 결제금액의 15% 캐시백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 신청을 2월부터 받아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용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에서는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를 지원한다.

농수축산업 경영안정 및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배 재배농가와 전복 양식어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축산 분야에서도 피해보전 직불금, 사료구입

비,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시책 확대 사업으로는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 난방비 10만원을, 각 마을 경로당에는 부식비 30만원을 설 명절까지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농수축산물 꾸러미 지원과 버스·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흥군은 지역 경제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군수 산하 공직자 및 유관기관·사회단체에 관내 음식점, 전통시장, 상가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소비·투자분야 각종 사업의 신속 추진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국내 정세 불안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여수시 '범죄예방시스템' 도입 개인 스마트폰을 CCTV로 활용

여수시가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룡산·고락산 일원에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나섰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 최초로 구현되는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은 개인 스마트폰을 이동형 CCTV로 활용하는 기술로, 위급상황 발생 시 여수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영상전송'을 누르면 실시간 영상이 관제센터로 전송되며, '긴급신고'를 누르면 관제센터 근무자가 신고자와 대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과도 연계한다. 해당 시스템은 공원 입구나 산책로 중간에 설치된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이용할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보성군이 검백면 능목마을 어르신들께 개별식별번호가 입력된 치매 안심 팔찌를 배부했다.

보성군 제공

공영자전거 30분 이상 이용 시 순천시 '봉사활동' 실적 인정

순천시가 대자보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온누리 공영자전거를 하루 30분 이상 이용하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자전거 이용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온누리공영자전거 이용실적 인센티브(봉사활동인증) 참여자 모집' 공고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공영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15세 이상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https://naver.me/Gj6lOESc>)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정책을 분기별로 운영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분기는 2월부터 두 달간 진행되며, 하루 30분 이상 온누리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하루 30분씩 인정된다. 두 달 동안 최대 31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교통정책과 대자보도시팀(061-749-6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안전한 외출 파트너" 치매 안심 팔찌 배부

보성군은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에게 치매 안심 팔찌를 배부하는 등 어르신 실종 예방과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보성군 총인구 3만704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6247명(43.8%)에 달한다. 그중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은 887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의 실종 문제를 예방하고 치매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치매 안심 팔찌 제작·배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 안심 팔찌'는 건강, 재물, 수호를 상징하는 옥으로 제작돼 어르신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실종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확인 및 보호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실종 예방을 위한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돼 있

어 실종 시 빠르게 경찰서와 보건기관에 연계된다.

치매 안심 팔찌는 보성군 보건소와 경찰서, 읍면, 지역주민이 협력해 고위험군 5820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치매 안심 팔찌 배부를 통해 지역사회가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 예방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성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장흥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모집

무주택 저소득 청년 등 월 20만원 2년간 지원

장흥군이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2차) 사업' 신청자를 오는 2월25일까지 모집한다.

14일 장흥군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월세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24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다.

이달부터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돼 저소득 청년들은 1, 2차 사업 구분 없이 최대 2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조사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구례군, 대한민국 압화대전 개최 내달 1일부터 작품 접수

구례군은 오는 2월1일부터 제24회 대한민국 압화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4일 구례군에 따르면 올해 압화대전 작품 접수 기간은 국외전 2월1일~7일(7일간), 국내전 3월1일~10일(10일간), 보존화 3월1일~5일(5일간)이다.

국내·외 압화 동호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압화분야(국내·국외)와 보존화 분야로 구분된다.

압화 분야 국내전은 구상(풍경, 정물), 추상(디자인), 장식(생활용품, 장신구) 3부분으로 구분해 작가들의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장려했다.

압화 분야 국외전과 보존화 분야는 부문 구분 없이 자유로운 작품 출품이 가능하다. 출품할 수 있는 작품 수는 압화 분야 국내전과 보존화 분야는 1인당 최대 2점, 압화 분야 국외전은 1인당 최대 3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작가는 작품과 신청서를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압화 분야 국외전과 보존화는 이메일(lee381@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구례군청 또는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대한민국압화대전위원회(061-780-2082)로 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압화대전은 자연과 예술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압화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여수시, '지정기부' 아이디어 공모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여수시는 고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정수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하고 오는 3월 중 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3명) 30만원, 장려(6명) 10만원 상당의 여수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며 "여수시에 적합하고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고흥사랑기부제로 1인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 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흥사랑e음·위키브 누리집, 국민·신한·기업·하나은행 금융앱, 전국농협장구를 통해 가능하다.

여수=이경기 기자